

기업 10곳 중 4곳 ‘이자도 못 낸다’… 경영부담 역대 최악

한은 ‘2024년 기업경영분석’

비제조·중소 이익 감소 직격탄
영업적자 기업도 사상 최대 기록
무차입 기업 비중 첫 10% 아래로
부채비율 제조업·대기업 상승세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3만4167개 가운데 지난해 이자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 포인트(p) 증가한 수준으로 2013년 통계 편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비율이 100%를 밑돌 경우 영업이익만 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적자인 기업도 역대 최고치였던 27.0%

보다 높은 28.3%를 기록했다.

정영호한은경제통계1국기업통계팀장은 “비제조 중소기업 중에 도소매, 부동산업 쪽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이자보상비율 계산 식의) 분자

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자보상비율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무차입 기업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밑돌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무차입기업은 대출없이 운영자금을 확보하

고 있는 기업이다. 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기업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과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70.1%로 전년(68.2%)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유정제·코크스는 2023년 99.8%에서 지난해 119.3%로, 전기 장비는 같은기간 94.6%에서 104.1%로 증가했다.

대기업도 2023년 89.1%에서 지난해 89.7%로 올랐다. 이 중 제조업은 같은기간 63.3%에서 66%로 증가했다.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7.5%에서 지난해 153.4%로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15.8%에서 118.0%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년 전 164.6%보다 하락한 159.7%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제조·건설 부진 1년째 지속… 숙박·음식업도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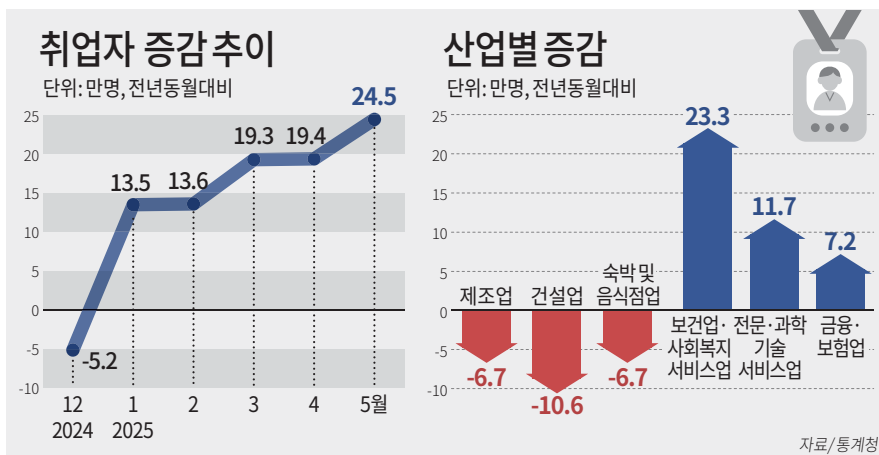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

5월 취업자 24만5000명 증가에도
청년·제조·건설 중심 고용 부진 지속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두 부문의 취업자 수는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1년가량 지속 중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4만 5000명 늘었다. 지난해 12월(-5만2000명) 줄어든 이후 올해 들어 5개월째 증가했다.

하지만 산업 부문별로 제조업(-6만 7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



였다. 건설업 역시 불황에 따라 취업자(-10만6000명)가 13개월째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6만7000명)과 농림어업(-13만5000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

해 2월(-2000명) 이래 15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7만2000명)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추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 폭은 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공 국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다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7만 명)과 30대(+13만2000명)에서 증가했다. 5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20대(-12만4000명), 40대(-3만9000명), 50

대(-6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수는 32만9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2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씩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8만4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6만1000명)가 모두 줄었다.

고용률은 63.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하락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술이 곧 경쟁력… 인재 확보 없이는 성장·혁신 없다”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
한국과학기술원서 CEO 특강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CEO 특강을 열고 배터리 산업 미래와 기술 인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성장과 혁신을 앞세우며 ‘최고의 기술 인재가 곧 배터리 산업의 미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강연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망 ▲SK온 성장 스토리 및 전략 ▲SK온 기술 혁신 및 미래 방향 ▲커리어 조언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CEO는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결국 기술 인재에 달려 있다”며 “CEO 취임 후 연구개발과 생산 인력을 핵심 축으로 삼으며 기술 역량과 현장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가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내 KI빌딩 퓨전홀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SK온

이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셀투팩(CTP) 기술 등 SK온만의 차별화된 기술 혁신을 소개하고, 에너지 밀도·급속충전·안전성 등 핵심 성능에서의 기술 경쟁력도 강조했다.

이 CEO는 “앞으로도 최고의 인재와

함께 성장하고 배터리 산업 기술 혁신을 SK온이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온은 R&D 인재 육성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임원진이 국내 이공계 대학을 찾아 산업 특강을 열며 기술력과 비전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박기수 SK온 R&D 본부장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카이스트, UNIST, 성균관대, 한양대 등과는 배터리 계약학과를 통해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연세대·한양대와는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기술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SK온은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산학장학생을 모집 중이며, 경력직과 신입박사의 경우 연중 상시 채용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가계대출 5.2조 증가… 8개월 만에 최대폭

한은, 5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주택담보대출 한 달 새 4.2조 증가

지난달 가계에서 빌린 돈이 5조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늘어난 1155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3조2000억원 증가한 가계대출은 3월 1조6000억원, 4월 4조7000억원에서 5월 5조2000억원까지 늘며 약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79%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는 2~3월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4조 2000억원 늘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토허제 이슈로 늘어났던 주택 거래가 대출로 이어지면서 증가했다”며 “예상했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올해 1월 2만 6000호→2월 3만 9000호→3월 5만호→4월 4만1000호로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같은 기간 3300호→6200호→9500호→5000호로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조원 늘었다. 기타 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다 4월과 5월 각각 1조원 증가했다.

박차장은 “가정의달과 관련해서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기타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